

프랜차이즈 창업의 모든 것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가이드

MakeMonLab | makemonlab.com

2026년 최신판

본 가이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 창업자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데이터와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 Chapter 1.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 Chapter 2. 프랜차이즈 vs 독립 창업 비교
- Chapter 3. 정보공개서 읽는 법
- Chapter 4. 가맹비/로열티/광고분담금 구조
- Chapter 5. 업종별 분석 - 외식
- Chapter 6. 업종별 분석 - 서비스
- Chapter 7. 매출과 수익 현실
- Chapter 8. 폐업률 데이터 분석
- Chapter 9. 계약 시 주의사항
- Chapter 10. 가맹점주 인터뷰
- Chapter 11. 창업 비용 시뮬레이션
- Chapter 12. 최종 체크리스트 +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Chapter 1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2025년 기준 약 13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약 7,200개이며, 가맹점 수는 약 29만 개에 달합니다. 이는 자영업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시장은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 기반 외식 프랜차이즈와 무인 매장 프랜차이즈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시장 성장 추이 (2020-2025)

연도	브랜드 수	가맹점 수	시장규모(조 원)
2020	6,100	25만	108
2021	6,400	26만	112
2022	6,700	27만	118
2023	6,900	28만	123
2024	7,100	28.5만	127
2025	7,200	29만	130

주요 트렌드

1. 무인화/자동화 매장의 급증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 빨래방, 무인 스터디카페 등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프랜차이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025년 무인 매장 브랜드는 약 45% 증가했습니다.

2. 소자본 창업 브랜드 확대

3,000만 원 이하로 창업 가능한 소자본 프랜차이즈가 전체 브랜드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특히 배달 전문점, 디저트, 테이크아웃 음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3. ESG 경영과 친환경 브랜드

친환경 패키징, 비건 메뉴, 로컬 소싱 등을 내세운 프랜차이즈가 MZ세대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는 평균 고객 재방문율이 1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구독형 프랜차이즈 모델

월정액 구독 서비스를 접목한 프랜차이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차 구독, 커피 구독, 꽃 구독 등 정기적 수익을 확보하는 모델이 안정적 매출을 제공합니다.

5. 데이터 기반 입지 분석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분석 도구가 보편화되면서,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주에게 과학적 입지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종별 비중

프랜차이즈 전체에서 외식업이 약 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서비스업 28%, 도소매업 20% 순입니다. 외식업 내에서는 치킨(18%), 커피/음료(16%), 한식(12%), 분식(10%), 피자/양식(8%)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입니다.

지역별 분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가맹점이 전체의 약 48%를 차지하며, 경상권 22%, 충청권 12%, 전라권 10%, 강원/제주 8% 순입니다. 인구 대비 가맹점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 마포구, 부산 해운대구 순입니다.

Chapter 2

프랜차이즈 vs 독립 창업 비교

핵심 비교표

항목	프랜차이즈	독립 창업
초기 비용	5천만~3억	1천만~2억
브랜드 인지도	즉시 확보	처음부터 구축
운영 자유도	제한적 (본사 규정)	완전 자유
마케팅	본사 지원	직접 기획/집행
교육/매뉴얼	체계적 제공	직접 개발
실패 리스크	상대적 낮음	상대적 높음
수익 배분	로열티/분담금 존재	100% 본인
폐업 시	위약금 발생 가능	비교적 자유

비용 구조 상세 비교

프랜차이즈 초기 비용 구성

- 가맹비: 500만~3,000만 원 (브랜드에 따라 상이)
- 교육비: 100만~500만 원
- 인테리어: 2,000만~1억 원 (본사 지정 업체)
- 설비/장비: 1,000만~5,000만 원 (본사 납품)
- 초기 물품비: 300만~1,000만 원
- 보증금: 500만~2,000만 원
- 기타 비용: 간판, 유니폼, POS 시스템 등

독립 창업 초기 비용 구성

- 점포 보증금/권리금: 1,000만~5,000만 원
- 인테리어: 1,000만~5,000만 원 (자유 선택)
- 설비/장비: 500만~3,000만 원 (자유 선택)
- 초기 재고: 200만~500만 원
- 마케팅 비용: 100만~500만 원